



BOARD OF STUDIES
NEW SOUTH WALES

2001

**HIGHER SCHOOL CERTIFICATE
EXAMINATION**

Korean Background Speakers

Transcript

(Section I Parts A and B)

Section I — Listening and Responding

Part A

Question 1

학우 여러분, 저는 사회과목의 프로젝트로 한국의 새로운 부부 풍속도에 대한 연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로운 부부 풍속도에 대한 정의와 예를 들어보고 다음으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부'의 고정 관념이 현재 한국에서는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일하는 남편', '애 보는 주부'라는 것은 옛날 말입니다. 요즘 부부들은 각자 추구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면 주저없이 갈라서서 각자 새 삶을 찾아 나서지요. '우리'라는 울타리 속의 내가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된 '우리'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는 어떤 부부는 각각 대학에서 시간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들의 집에 가보면 조금 색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들 부부는 각방을 쓰고 있는데 남편 김씨는 큰 안방, 아내는 나머지 작은방 2개를 씁니다. 각자 강의 준비와 논문 연구로 라이프 사이클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의 작업과 수면 시간만은 방해하지 말자는 의도에서 착안한 이들만의 생활 방식이지요. 물론 두사람은 강연회는 물론이고 연극, 전시회에 함께 다니며 취미 생활도 함께 합니다. 서로 철학과 인생을 논하고 도와주며 같은 길을 가고 있다는 점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통해 인생과 사회의 동반자를 얻은 경우라 할 수 있겠지요.

이처럼 한국의 최근 부부 풍속도는 불과 7~8년전에 비해서도 판이하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남자는 이제 결혼과 가정이 단순히 '의무와 책임'을 수반하는 울타리이길 원치 않고 여자 역시 가정이 단지 살림하고 자식을 키우는 곳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부부들은 가정이란 함께 즐기고 서로 도와주며 더 높게 성장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길 원합니다.

그러면 신풍속도가 좋기만 합니까? 한국의 신풍속도가 장점만 있는것은 아닙니다. 예전 같으면 이혼은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경향이 있어 가급적 문제를 묻어두고 살았지만 요즘은 이런 사회적 인식이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마음이 맞지 않으면 별 꺼리낌 없이 갈라서곤 하지요. 참을성없는 이런 모습이 바람직 합니까?

또한 예전 같으면 이혼할 때 서로 아이를 키우겠다고 했으나, 오늘날의 부부는 독신이나 재혼에 부담이 되는 자식을, 과감히 포기하고 자유롭게 제2의 인생을 살겠다는 것이지요. 너무한 일 아닙니까? 아이들에겐 너무 가혹한 일 아닙니까?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가정에까지 침투한 불행한 사태라 볼 수 있지않습니까?

Section I — Listening and Responding

Part B

Question 2, Text 1

뉴스 앵커 : 7시 뉴스입니다. 오늘의 첫 뉴스는 옥골 마을의 환경오염 문제입니다.

기자 : 23일 오후 인천시 옥련동 옥골 마을. 포클레인으로 배추 밭을 1m 정도 파 내려가자 시커먼 흙에 반죽이된 기름 덩어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1955년 부터 1975년 까지 20년간 모 정유회사의 기름 저장 장소로 사용됐던 이곳에는 지금은 기름 저장 장소가 이전된지 25년이나 지났지만 밭 도랑과 개울에서 누런색 기름이 물에 둥둥 떠 다닙니다. 이 회사가 밀이뚫린 기름 탱크를 오랜동안 사용하는 바람에 많은 양의 기름이 땅으로 스며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날 실태 조사차 방문한 녹색연합 관계자들과 본 방송국 취재진이 마을에 들어서자 주민들은 기름 냄새가 진동하는 '죽음의 땅'에서 수십년간 겪었던 불만과 분노를 앞다퉈 쏟아 냈습니다.

기름에 오염된 우물을 비닐 하우스안에 흉물스럽게 방치한채 농사를 짓고있는 유학열씨는 지하수에서 기름 냄새가나 물에 숯과 자갈을 넣어 걸러 마시고, 몇해동안 논농사를 망친뒤 모두들 밭농사로 바꿨다고 하소연 했습니다.

마을 노인 회장 박증옥씨는 정유회사가 있을때는 송유관과 탱크가 남아, 저장 탱크 주변에는 기름이 철렁철렁 넘쳤고, 25년동안 빗물에 씻겼는데도 나아진건 없다고 진저리를 쳤습니다.

세 차례에 걸친 현장 조사를 토대로 이 지역의 토양과 물 오염 실태를 폭로한 녹색 연합의 나삼진 사무처장은 기름에는 벤젠톨루엔등 유해 화학 물질이 포함되 있기때문에 농작물과 식수를 먹고산 주민들에대한 건강상태 조사가 꼭 필요 하다고 말했습니다.

Section I — Listening and Responding

Part B

Question 2, Text 2

본 방송국에서는 옥골 마을의 토양 및 물 오염을 일으킨 정유회사의 사장을 만나 보았습니다.

기자: 이 마을의 오염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회사를 대표한 사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장: 저로서도 그점은 유감입니다. 그렇지만 워낙 오래 전에 이곳에 기름 저장 탱크가 있었던 관계로 저로서도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기자: 토지와 물의 오염때문에 논농사도 지을 수 없고 지하수도 못마신다는데요?

사장: 그점은 저희로서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저희 회사로 인해 옥골 마을이 입은 혜택도 많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 반 이상이 현재 우리 회사 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회사가 처음에 이 마을에 들어설 땐 전기도 없고 차도도 없었습니다. 사실 우리 회사 때문에 혜택 본 것도 많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이 지역 사회에 커다란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기자: 기름의 여러가지 유해 성분으로 인해 이곳에서 난 농작물과 식수를 먹은 주민들의 건강상태를 앞으로 조사 할 예정입니다. 이 결과를 보고 주민 및 녹색연합에서는 법적인 대응을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지요.

사장: 조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기자: 만일 조사 결과가 회사쪽에 불리하게 나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장: 결과가 나오는데로 최선을 다해 조치하겠지만 경제 개발 단계에 있던 1960~70년대 그 당시로선 산업발전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환경문제까지 신경을 쓸 여유가 없었지 않았을까요?